

김현미 장관, “고속도로 사망률 감소 위해 만전 기해야”

- 23일 18개 민자고속도로 법인 대표·유관기관 전문가 교통안전 간담회
- 구간단속·쉼터 확대, 도공-민자 간 공동대응 등 획기적 감소대책 추진

□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23일(화) 세종 국토부 청사에서 민간 투자 고속도로 18개 법인대표 및 경찰청·도로공사·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들과 「민자고속도로 도로교통 안전간담회」를 열고 교통 사고 사망자수 감소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였다.

- 이날 간담회는 최근 몇 년간 감소추세였던 고속도로 사망자 숫자가 올해 초 다시 증가세*에 있어 긴급히 개최하게 된 것으로

* (사망자) '17년 248명 → '18년 252명 → '19년 206명(1~5월 72명) → '20년(1~5월 77명)

- 상주영천 고속도로(5.31일 3명 사망) 및 천안논산 고속도로(올해 5명 사망) 등 올해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노선을 중심으로 구간단속 확대, 졸음쉼터 확충, 도공·민자 간 사고 공동대응 방안, 2차 사고 예방 등 종합적이고 다양한 개선대책이 논의되었다.

□ 이날 김 장관은 “현재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OECD 평균보다 뒤처지는 수준*으로, 정부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감축기조를 견지하고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구축할 계획”임을 재차 강조하면서,

*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'19년 6.5명으로 OECD 35개국 평균('17년)은 5.2명

- “지난 5월 7일 발표한 도로 인프라 중심의 「도로교통 안전강화 특별대책」을 세부 과제별로 신속하고 면밀히 추진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을 조성하겠다”고 밝혔다.

□ 아울러, “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정부와 업계, 국토부와 경찰청, 도로공사와 민자고속도로 간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 고속도로 교통사고가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갖고 만전을 기해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2020. 6. 23.

국토교통부 대변인

참고

18개 운영 중 민자고속도로 교통안전 추진상황



<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>



<영상유고검지 시스템>



<염수자동살포장치>



<터널내 교통안전표지판>



<터널 무지개조명>



<터널입구 차량방호시설>



<무료긴급견인서비스>



<자체 및 합동 적재불량차량 단속>



<로드킬 예방 유도울타리>



<안전운전안내시설>



<램프구간 갈매기표지판>



<자동정체 알리미 시스템>



<유실된 비탈면 긴급조치>



<방음터널 방재시설 보강>



<터널 복합재난 대응훈련>



<호우 대응훈련>



<폭설 대응훈련>